

25년 4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라서 그런가요? 봄이 왔는데 날씨 변화가 무쌍합니다.
더불어 주식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극에 달한 듯합니다.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았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코로나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퇴직연금 파트너분들께 오랜만에 이렇게 글월을 올립니다.
포트폴리오 변경의 시점이 왔다는 판단에 레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서 이번엔 바로 본론으로 진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퇴직연금 파트너님들에게 올린, 제안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20%
4. 증권 ETF : 10~25%
5. 지주사 ETF : 5%~15%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작년 연말, 정치적 사건을 뒤로 하고, 올해 한국 정치권에는 과거와는 다른 투자관련 이슈가 정치권 중앙에 위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랩 어카운트로 함께 하시는 파트너분들께는 이미 언급을 드렸습시다만,
'상법 개정' 이슈는 한국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상법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차원이 다른 시장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례가 몇 건 확정된다면 말이죠.

이 시점에서 저희는 향후 상황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한 근원적 퇴직연금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고민했고, 다음과 같이 변경된 포트폴리오를 제안 올립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증권 ETF : 30~40%
4. 지주사 ETF : 5%~15%
5. 건설 ETF : 5~10%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25년 4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준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은행 ETF**를 수익 실현 확정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였고, 해당 부분만큼, **증권ETF**의 비중을 늘렸고,
건설 ETF를 다시금 재등록하였습니다.

반도체ETF는 계속해서 작년 7월 이후 부진 중입니다.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일정 수준 가격 반등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ETF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증권ETF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유는, 안정적 금융권 관련 주식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영역이고, 최근 2~3년전부터, 매우 빠르게, 증권주식들이 주주환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더불어, 한국 자산 시장의 성장하게 될 경우, 수혜를 볼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기에, 포트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ETF의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주요 건설사를 방문해본 결과, 과거와 다른 수익구조의 구축이 이루어졌고, PF 노출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가치대비 저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소폭 주주환원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나가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시는 퇴직연금 파트너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던, 유튜브 '증시각도기TV'는 회사의 정책으로 6월20일까지 진행하고 단기적으로 종영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님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 날 되시길 바랍니다.

4월 꽃이 지는 시기에

증시각도기
곽상준 올림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곽상준 올림.